

재가 여성노인의 약물 얹매임 경험

김 정 선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나타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9.1%로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평균 77.5세이나 여성 80.8세, 남성 73.9세로 여성노인이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54.8%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남성노인(37.1%)에 비해 여성노인(66.0%)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건강수명이 짧은 유병장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 수준이 남성노인보다 취약함을 입증하고 있다.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2004)에 의하면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노인성 질환 치료약물이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물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위험도가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성 있는 약물사용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였다.

더욱이 노인은 일반성인에 비해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생리적 기능도 저하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대부분 3-4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약물상호

작용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약물선택 시 약물의 투여용량, 특정약물의 사용여부, 약동학 및 약력학, 올바른 약물사용 방법 등이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인은 배우자 상실로 인한 무배우자 기간이 길고, 사회경제적 역할 상실과 빈곤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노출에 취약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남성노인에 비해 약물사용 기회가 높아 약물 오·남용의 잠재적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Kim, 2002).

지금까지 노인의 약물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측면에서는 약물사용실태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연구나 관련요인 연구(Kim, 2001; Lee, 2003), 약물 오·남용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효과검증연구(Lee, 2001; Shin, Kim, Kim, & Yi, 2005), 약물이행(Ahn, 1998)등의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질적연구는 근거이론을 통한 약물사용 경험 과정 연구(Kim, 2002) 뿐이었다. 한편 의학적 측면에서는 노인환자 약물치료와 관련된 지침이나 약물요법, 약물의 종류에 따른 노인의 특성 혹은 약물간의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임상 약학적 측면에서는 약물사용 양상이나 적절성, 약물의 상호작용 연구가 주로 임상에 있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인들이 노년기가 되면 왜 약물에 매달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는 전무하다.

간호학은 의학이나 약학과 달리 약물 그 자체 뿐 아니라 약물관리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더욱이 노인은 노화와 질병 특성상 다중약물(polypharmacy)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임상 간호현장에서 노인약물에 대한 사정, 감시, 상

주요어 : 노인, 약물

1)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투고일: 2006년 8월 8일 심사완료일: 2006년 10월 30일

담, 교육, 평가와 관련된 간호중재에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은 사회적 고립으로 쉽게 우울과 불안을 느끼게 됨으로서 약물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Kim, Song, Jung, & Shin, 2001). 따라서 처방 약물과 비처방약물의 약물사용 빈도가 높은 재가 여성노인이 왜 약물에 얽매이게 되는지에 대한 현상을 질적연구방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살펴본다면 여성노인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심리현상을 중요시 여긴 Giorgi(200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의식의 맥락 속에서 약물에 대한 지향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재가여성노인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약물 얽매임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체험에 내재되어 있는 약물 얽매임의 일반적인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재가여성노인이 일상 속에서 약물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약물 얽매임의 현상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약물 얽매임 현상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료수집의 편의성과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편의적으로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의 간호사로부터 인지장애가 없고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처방 및 비처방 약물사용 빈도가 높은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소개 받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참여의 철회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 윤리적 고려사항을 설명한 뒤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4명 이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사용된 자료유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참여자의 의무기록이었으며,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상담실이나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해당기관의 진료실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참여관찰은 참여자들의 약물 얽매임 현상에 대한 면담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의무기록은 참여자들의 건강문제와 주소, 복용하고 있는 약물처방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었다. 면담초기에는 참여자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비구조적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건강문제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년이 되고난 후 약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등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동안 참여자의 불편감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시 짧은 휴식기를 가졌으며, 면담횟수는 1차에서 3차까지 이루어졌다. 면담된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은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면담 후 참여자와 면담동안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은 메모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2000)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재가 여성노인의 약물 얽매임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 전체 면담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심리학적 관점으로부터 약물 얽매임 현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의미단위를 구분해 내고, 의미단위 안에 내재된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나타난 53개의 의미단위들을 가장 적절한 학문적 표현으로 변형하였다. 이어 약물 얽매임 현상과 관련된 심리학적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의미단위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뜻하는 단위들을 묶어 총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구성요소들은 다시 요소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약물 얽매임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

현상학적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현상학적 동의를 제시한 Munhall(1994)은 연구자와 대화를 나눈 연구참여자로부터 현상학적 동의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고(Shin, Choi, & Yang, 2004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질적연구에서도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선택한다. 그러나 Giorgi(2003)는 일반적 구조적 기술 분석결과를 참여자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일반 구조적 기술은 심리학적 분석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Giorgi는 현상학적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비판적 분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료로 돌아가서 구분해

넌 의미단위와 유사 의미단위간의 통합을 통해 학문적 용어로의 전환 및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과 분석과정에서 괄호치기(bracketing)를 적용하였고,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와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비처방 및 처방약물의 사용빈도가 높은 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에 얽매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64세에서 75세로, 평균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및 2가지 이상의 기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5~10가지 처방 및 비처방 약물(주로 만성질환 관련 처방약물과 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대변완화제, 수면제, 영양제, 파스 등의 비처방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1명을 제외하고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경제상태를 나타냈으며, 기족관계로 2명은 가족과 동거하였으나 2명은 독거노인이었다. 이러한 4명의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면담자료를 토대로 Giorgi(2000)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53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고 유사한 의미를 묶는 작업을 통해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가족부담 예방’, ‘심리적 위안 추구’ 라는 총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

●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

연구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면서 몸의 상태가 쉽게 피곤해짐을 느끼게 되고, 기력도 쇠약해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절감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질병으로 인한 약물의 장기사용은 또 다른 질병발생으로 약물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약물의 부작용과 중독 증상을 초래하게 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약에 시달리는 힘든 삶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질병치료나 현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은 앞으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더욱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의욕을 자연적으로 상실하게 함으로써 약에 더욱 얽매어 생활하게 하였다.

아주 빨리 피곤을 빨리 느끼죠 오후 4시나 되면 아주 피곤

해서 못 견뎌요....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 몸이 약해진 게 보약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방 가면 보약을 안 지어 줘요 먹을 수가 없다고 몸의 상태가 이러니까 기력이 너무 약해서.. 어지럽고 몸에 힘도 없어 ‘아이고 이거 죽을려나 보다 어찌 이러냐’ 맨 날 누워있고만 싶고 그리고 잠이 안와. 그러면 또 잠 안 오니까 그 약을 또 타오지.. 약을 많이 먹으니까 더 약에 휘달려서 시달림을 받으니까 더 힘이 들지요 이 약 켈라고든 또 탄 약 또 먹고 또 그 약 켈라고 그 탄 약 또 먹고.. 6,7년 동안 삶이 지옥이었다고 보죠 한 마디로 말해서.. 지옥이지..그것은 아주(강조하면서) 살기 힘든 세월이었죠 그러니까 약 먹는 게 시달리고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니까.. 몸이 힘들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위장약을 하여튼 15년 20년을 먹었고 사리돈 같은 것을 한 20년씩 막 먹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 친구 사귀 자신도 없고. 다리가 아프다던가 몸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늙은이들은 그런 희망도 의욕도 없어..(참여자 2)

●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젊었을 때 보다 병에 대한 치유력이 약해져서 새로운 질병이나 기존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기회가 높아졌다는 인식과 함께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질병이 악화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약에 더욱 얽매이려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주변에서 뇌졸중이나 치매 등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몸을 스스로 가누지도 못하고 자리보전하는 사례를 듣거나 실제로 목격하면서 외상상태가 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몸져눕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외상상태의 삶은 결국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이고, 이것이 이젠 더 이상 주변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에 계속 매달리려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있다가 내 몸뎡이 움직이고 될 수 있으면 움직여서 청소라도 하고 이 정도로 하다가 죽어야지. 그거 드러누워 오줌, 똥 싸가며 드러누우면.. 다들 그거 무서워서 약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중풍 걸려 가지고 드러누운 사람, 그 사람은 걸린 날이 인생은 간 거야. 끝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돼. 아주 내 육신까지 가야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는 치매 안 걸리는 거. 치매 안 와야 되고 둘째는 풍에 안 걸려야 되고 암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암은 걸렸다 하면 너는 백발 몇 달 있으면 간다는 것이 기억이

왜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두려워요. 그런데 치매하고 풍. 그건 두렵죠. 아유, 그 죽지도 않고 차라리 죽는 게 신세 안 지고 낫지. 말이 있잖아. ‘죽는 게 서럽지 않고 아픈 거 서럽다’고 몸은 아프지. 긴 병에 효도 없다고 아유. 끔찍해요. 까딱까딱 앓다가 죽을까 봐 그게 무섭죠. 본인이 고생스러워. 그렇게 될까 무서워(참여자 3)

●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

연구참여자들은 젊었을 때는 약을 사용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에 좋다는 약을 찾게 되고 약의 효과가 있든 없든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강박적으로 반드시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객관적으로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몸이 아프지 않는데도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외출할 때도 약봉투를 먼저 챙기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주위에서 어디가 좋다고 하거나 어떤 약을 먹고 몸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그 병원을 찾아 똑 같은 약을 구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호기심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게 하였다. 아픔을 덜기 위해 또는 아프지 않게 살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약에 대한 집착은 약에 의지하려는 태도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통증이 재발함에 따라 계속해서 약의 수가 늘어나고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였으며, 이젠 나이가 들어 자신의 몸 상태가 어쩔 수 없이 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에 약에 더욱 의지하려 하였다. 약은 통증과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는 반복적으로 약 사용의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주식(主食)에 비유함으로써 약 사용을 삶의 과정 혹은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으며, 삶이 약기운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약을 생명의 파수꾼과 같이 생각하였다. 약에 의지하려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사고는 약을 복용해야 살아가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였고,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마저 들게 할 정도로 약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나타냈다.

약을 안 먹으면 안되지. 꼭.. 먹어야지 하고 자꾸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먹으면 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약)안 먹을 수가 없어. 불안하죠. 나이는 80다 먹었는데 어떻게냐? 그런 생각이 들죠..... 약도 먹어봐야 별 거 없어. 그저 습관성으로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안 먹으면 더 나빠질까 봐.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지. 별로 효과

가 없는데도 먹어야지 그리고 그냥 먹는 거야. 안 듣든 듣든 간에 안 먹으면 서운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첫째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드라고(참여자 1)

●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해서라도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질병이 없는 깨끗한 몸 상태가 유지되기를 항상 기원하였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고통없이 자신도 모르게 잠자듯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약 사용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편안한 삶과 죽음이 현실로 되기를 기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고통스런 삶과 죽음에 이르는 동안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피해를 부담스러워 하였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자식이나 주변에게 추하지 않고 위엄있게 비춰지기를 원했으며, 좀더 고통없는 편안한 삶과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더 약에 연연하는것은...(참모) 왜냐면 그냥 죽을 때 내가 모르고 잠들 듯이 죽으면 좋는데 고생하고 아들 딸 고생시키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약은 꼭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된다고 왜냐면 어떻게서든지 애쓰지 않고 고생 안 하고 그런 꼴 보이지 않고 깨끗이 살다갈라고. 뭐 자다가 병 없이 아프지 말고 병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그냥 자는 듯이 가는 건 좋다. 그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자다가 나도 모르게 가도록 나에게 아픔도 아무 것도 주지 말고 자다가 그대로 가게 해 주세요 하고 빌지.(참여자 1)

● 가족부담 예방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다기 보다는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자식들이나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고생시킨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가족에게 주지 않으려면 약을 복용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성하게 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고생이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자신의 대에서 끝나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질병과 노화 혹은 약물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는 자녀들의 염려 때문이라도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약 사용이 가족들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법이라고 보았다.

내가 이런 걸 자식들한테 또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쥬 내가 약을 먹으면서 이 만큼씩이라도 살아서 우리 영감님이 저렇게(뇌졸중과 치매에 거동이 불편함) 살다가 내 앞에 죽어야지. 그래서 시방 영감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그렇게 원통하지도 않아. 내 앞에 돌아가셔야 팔자 편안하고 나도 자식들한테 그런 거 안 물려주고 그래 내가 어떻게라도 몸이 아프고 귀찮아도 운동하고 약 열심히 먹는 거여. 자식들한테 그런 꼴 안 물려 줄라고 아주 그걸 내가 결심을 하고 있다고.. 애들이 때되면 “엄마 병원 날짜 잊어 먹지 말고 가” 그리고 다음 언제까지야 라고 전화로 미리 알려주지.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매주 주일마다 와서요 ‘엄마, 약 잘 잡수고 계시죠? 요즈음 건강은 어떠세요? 뭐 필요한거 없으세요?’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고(참여자 4)

● 심리적 위안 추구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하면서도 약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복용 그 자체로 상태호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복용하는 것에 심리적 편안함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약의 효과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약사용 행위 그 자체가 참여자들에게는 더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약사용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약사용 후 마음이 더 편안해짐을 느낌으로써 약을 기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으며 심리적 위안을 찾기 위해 약을 계속 복용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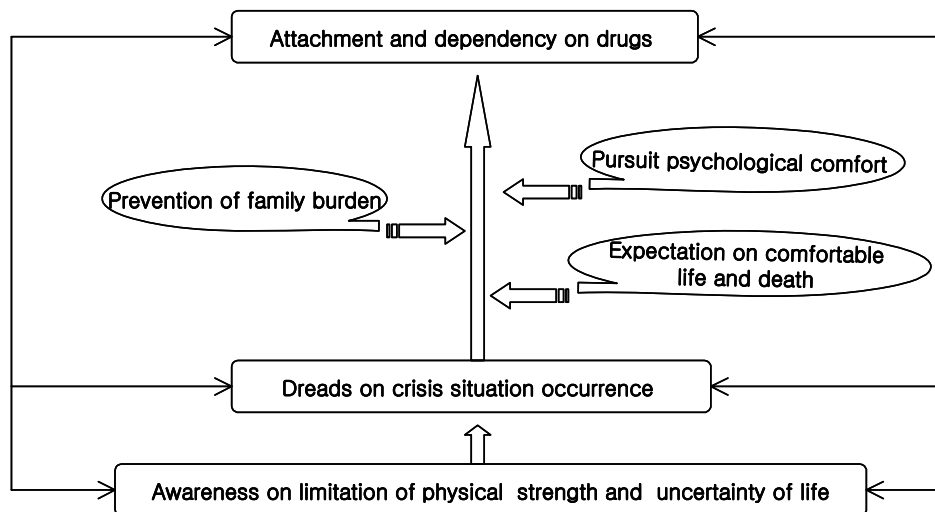
약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아 질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으면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가 약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3박 4일동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때도 뭐 주사한대 맞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갔고 갔

쥬 그러니까 마음이 놓였쥬 그 약 타가지고 가니까... 또 우황청심환 그런 것 또 따로 가져 갔구요.....그러니까 기분이쥬 기분. 안 나아도 ‘애 나왔구나’ 가래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쥬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더라도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지 뭐. 그러니 아무래도 약을 가지고 있고 또 먹는거가 심리적으로 위안은 되는 거지.... 이 가래 감기약은, 이런 약은 뭐 잘 안 들으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기분으로(참여자 3)

약물 옴매임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연구에서 재가여성노인의 약물 옴매임 경험의 구성요소는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가족부담 예방’, ‘심리적 위안 추구’로 나타났으며, 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시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약물 옴매임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보면, <Figure 1>에서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과정 진행과 증가된 질병의 수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용할 약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 주기인 노년기에 이러한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에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의 상실을 가져와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의 체력한계를 자각하게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질병악화를 더욱 염려하게 하였고, 주변에서 외상상태로 인해 삶이 고통스럽거나 고생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를 접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의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



<Figure 1> General structure of experiences of being tied with drugs

옴은 연구참여자들을 약에 더욱 집착하고 의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몸에 좋다는 약을 복용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정도로 약에 집착하게 되었고, 약기운으로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약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에 더욱 의존하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이나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인식의 차원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이라는 행위적 차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과적이면서 순환적 속성을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의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의 행태는 약복용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 건강악화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예방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생의 과정에서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에 의해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연구참여자들을 더욱 약에 얽매이게 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물 얽매임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연구참여자들이 시간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약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적응양상을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재가여성노인이 경험하는 약물 얽매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가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약물 얽매임의 본질적 의미는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각’,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가족부담 예방’, ‘심리적 위안 추구’ 6개의 구성요소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경험적 구조는 결국 참여자들의 현실적 적응양상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 및 질병과 관련된 건강문제로 약물에 얽매이면서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체력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었고, 질병악화와 약사용의 증가로 인한 약순환의 반복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약으로만 연명해가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여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깨닫게 되었다. Cho(2002)에 의하면 여성노인은 노화인식·경험과정에서 ‘늙음이 가져다 준 신체적 질병’과 ‘기력과 함께 줄어든 자신감’과 같이 노년에 병들고 지친 자신의 몸상태를 인식하면서 체력의 한계와 함께 자신감의 상실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체력과 근력의 저하, 관절의 유연성 감소 등과 같은 전신적인 감퇴현상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Tinette, Richman과 Powell(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이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

태로서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지에서 나타난다(Hangeul Academy society, 2005). 인간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노년기는 다른 연령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취약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일상에서 더 절실하게 자각할 수 있다. Jessup과 Stein(1985)에 의하면 불확실성은 질병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약에 얽매어 사는 연구참여자들은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고 이는 현재의 삶에 비관적인 견해를 갖게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져 외상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결국 고생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Gu(2002)에 의하면 인간은 모든 것이 제 틀에 맞아 잘 돌아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자신의 틀이 무엇에 걸려 빠격이며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불안전함을 느끼고 만일 틀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흔들릴 것 같으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 두려움은 예상되는 어떤 불확실한 결과에 관계하고 인간은 두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꺼리며 어떤 것을 꺼리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약을 사용하면서도 노화의 진행과 악화될 개연성이 있는 질환상태, 외상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례의 간접경험 등을 통해 자신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을 구속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체력의 한계 및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각하게 됨에 따라 약물에 얽매이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함에 따라 더욱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을 낳게 하였다. Kim 등(1999)에 의하면 노인은 생활세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의존적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Youn(1994)은 의존성 증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노년기 심리적 적응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Blenkner(1965)는 노인의 의존성을 경제적 의존성(연금, 보험, 용돈), 신체적 의존성(퇴화한 신체기능에 대한 보완), 정신능력의 의존성(기억, 판단에 대한 도움), 사회적 의존성(사회적 접촉의 추구, 고립의 회피), 심리적 의존성(감정적 유대, 안락감) 5가지로 구분하였다(Youn, 1994에서 재인용). 이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집착이라는 심리적 의존으로 약을 통한 안락감을 얻으려는 속성을 나타냈으며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약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상황적 심리적 적응을 보여주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해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몸에 좋다는 약에 집착

한 나머지 그 약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강박적 사고는 약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고 결국 약 사용이 생활화되고 약기운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약에 의존하려는 속성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이 단순히 심리적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의존과 관련된 행위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하고, 약 사용 그 자체를 심리적 위안으로 삼으려 하고, 그리고 말년에 편안한 삶과 죽음을 기대하려는 촉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어 자리보전하게 되면 가족에게 피해를 주어 가족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약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국노인의 삶을 연구한 Kim 등(1999)에 의하면 노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부양의 의미가 크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젊은 세대와 같이 노인도 부양관계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식들한테 신세지고 추한 꼴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버티고 있는 거야’처럼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약 사용 행위자체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었다. 약으로 인한 실제적 효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의 일과처럼 약을 복용하고 거기서 심리적 편안함과 위안을 얻으려 하였고 그 행위 자체에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낙관성이란 인간본질의 긍정적 의미로, Scheier와 Carver(1992)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Jo,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약 사용 행위 그 자체를 통해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될 것이며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함께 심리적 위안을 삼고 있었다. 약에 옹매이면서도 위기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기원하고 죽음 또한 깨끗하고 편안한 죽음을 소망함으로써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노인의 노화체험 연구에서 노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생애 애착심을 나타낸다고 한 Kim(1998)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Han 등(2002)의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무병사’ 및 ‘자연사’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Kim, Lee과 Kim(2003)은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요소로 ‘통증 없는 편안함’, ‘죽음에 대한 준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노인들은 삶과 죽음에서 자신보다 항상 가족을 먼저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다른 한국인의 가족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이 약을 복용해서

라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질병악화를 방지하여 자신보다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편안한 삶과 죽음을 기대하는 것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처방 및 비처방 약물의 사용빈도가 높은 재가여성노인의 약물 옹매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Giorgi(2000)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약물 오남용 현상에 대한 심리적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노인약물교육의 주요한 기초자료 및 노인간호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면담자료를 통해 ‘불확실성과 한계에 대한 자각’,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가족부담 예방’, ‘심리적 위안 추구’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불확실성과 한계에 대한 자각’과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가 참여자들이 약물에 옹매이는 원인적 요소로 나타났고, 약에 대한 집착과 의존은 원인적 요소에 의한 결과적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순환적 특성을 나타냈고 ‘편안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 ‘가족부담 예방’, ‘심리적 위안 추구’와 같은 촉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노년기에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약물에 옹매이며 사는 참여자들의 현실적 적응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보면, 먼저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간호사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상과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노인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올바른 약물사용과 관련된 투약간호의 실무지침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약물상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심리적, 행위적 특성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간호교육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사회문화적, 시간적 맥락 안에서 노인의 약물에 옹매임 현상이 나타나는 근거를 밝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성인기와 동일한 획일화된 기준으로 투약교육이 이루어지던 간호현장에 노인관점에 근거한 투약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노인의 다중약물(Polypharmacy)로 인한 약물부작용 및 약물독성과 같은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간호연구에서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노인의 약물과 관련된 연구가 국지적으로 정량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노인의 약물실태를 제시한 것과는 달리 정성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노인의

약물 엽매임 현상의 구성요소와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기전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약물 엽매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전략의 기초자료 제공 및 이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가여성노인의 약물 엽매임에 대한 구성요소와 경험의 일반적 구조에서 나타난 요소들간의 관계가 표집을 확장한 반복연구를 통해 노인의 약물사정 도구개발과 약물 엽매임 현상의 심리적 기전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hn, J. (1998). *Medication compliance of recently discharged elderl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 Y. S. (2002). Experienced adaptation by the female aged to aging in Korea. *J Korean Gerontol Nurs*, 4(2), 143-152.
- Giorgi, A. (2000).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y to caring research. *Scand J Caring Sci*, 14, 11-15.
- Giorgi, A. (2003).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2003'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 Gu, Y. S. (2002). *Fear, Dreads, and Anxiety*. Seoul : Chungkye Publications.
- Hangeul Academy society (2005). *Korean Dictionary*. Seoul : Guelnarhae Publication.
- Han, N. Y., Youn, H. J., Park, I. H., Jeong, Y. S., & You, S. M. (2002). Perception on good death in elderly. *J Korean Acad Fam Med*, 23(6), 769-777.
- Jessup, D., & Stein, R. E. (1985). Uncertainty and its relation to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chronic illness in children. *Soc Sci and Med*, 20(10), 993-999.
- Jo, H. N.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international schem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B. R., Song, K. H., Jung, G. Y., & Shin, J. S. (2001). A Study on medicine misuse in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Nurs*, 3(2), 208-216.
- Kim, H. S. (2001). The actual condition of taking medicine and related factors in Gwangju community. *J Korean Health Soc*, 27(1), 67-79.
- Kim, I. K., Kim, D. B., Mo, S. H., Park, K. S., Won, Y. H., Lee, Y. S., & Cho, S. N. (1999). *Life of Elderly in Korea*, Seoul : Think's tree Publications.
- Kim, J. S. (2002). *Lived experiences of drug use in elderly women with chronic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L. (1998).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in the Korean elders. *J Korean Acad Adult Nurs*, 10(2), 234-244.
- Kim, S. M., Lee, Y. J., & Kim, S. Y. (2003). Attributes considered important for a good death among elderly and adults. *J Korea Gerontol Soc*, 23(3), 95-110.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06). *The population of Korea*. Web site : <http://wwwsearch.nso.go.kr/>
-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4). *Drug use pattern and evaluation for appropriateness in geriatric patients*. KFDA.
- Lee, S. A. (2003). *A Study on the drug use by the elderly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usan.
- Lee, D. Y. (200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tion misuse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2004 Survey of Welfare Need in Elderly*. Web site : <http://www.mohw.go.kr/>
- Shin, K. R., Kim, J. S., Kim, J. Y., & Yi, H. R. (2005). Effects of a drug misuse and abuse prevention program on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drug misuse and abuse, and depression in low-income elderly women. *J Korean Acad Nurs*, 35(5), 763-773.
- Shin, K. R., Choi, M. O., & Yang, J. H., et al.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Tinette, M. E., Richman, D., & Powell, L. (1990). Falls efficacy as a measure of fear of falling, *J of Gerontol*, 45(6), 239-240.
- Youn, J. (1994). *Psychology of adults and older*. Seoul : ChungangJukseong Publications.

Experiences of Being Tied with Drugs in the Elderly Women in Community

Kim, Jeong-Sun¹⁾

1) Full 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understand elderly women within a community who have used lots of drugs.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elderly women from April 2001 to February 2002. Data was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2000). **Results:** The components in common with drug usage of elderly women were as follows: 'Awareness of the limitation of physical strength and uncertainty of life', 'Dread of a crisis situation occurring', 'Attachment and dependency on drugs', 'Expectation of a comfortable life and death', 'Prevention of family burden', and 'Pursuit of psychological comfort'. The general structure of experiences was as follows: causal factors were 'Awareness of uncertainty and limitation', 'dread of a crisis situation occurring' the results factor was 'Attachment and dependency on drugs'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were 'Expectation of a comfortable life and death', 'Prevention of family burden', and 'Pursuit of psychological comfort'. The causal relation was cyclic. This structure showed a realistic adaptation pattern. **Conclus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s for health promotion and promot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by increasing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drugs use.

Key words : Elderly, Drug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eong-Su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dong, Dong-Gu, GwangJu, Chonnam 501-746, Korea

Tel: 82-62-220-4055 Fax: 82-62-225-3307 E-mail: kjs0114@jnu.ac.kr